

### 도로공사·공장분진·소음까지

# ‘또 버려진 절터’



산은 부처님을 모신 절 집이 깃든 곳이고, 부처님을 모시는 이들이 등 구부리고 모여 사는 곳이다. 부처님을 모신 집은 아이 낳고, 고기 굽는 집이 아니기에 팔자이나, 단청으로 모양을 내야하고, 대나무, 찻나무로 울타리를 쳐야한다. 부처님을 모시는 이들이 사는 것은 단순히 밥숟갈을 고르고 잡자리를 펴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이마는 맑아야 하고, 옷자락은 무채색이어야 한다. 땀을 위에 놓인 흰 고무신에 햇살이 쬐이고, 처마 끝 목은 거미줄에 달빛이 걸리는 곳. 물소리, 가랑잎 구르는 소리로 장엄한 절 집이 포크레인이 큰 짐승처럼 다가 설 때, 물욕의 거센 파도가 산터미처럼 밀려올 때, 부처님을 모시는 이들은 더는 물러 설 곳이 없어 창자가 달라붙는 침묵으로 맞서야 하고, 도룡뇽, 진달래도 한 덩어리가 되어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가슴은 터널이 관통하고, 눈은 고압선이 안대처럼 휘감긴 산. 무릎은 도로로 잘리고 어깨는 아파트로 짓누르는 산. 산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차라리 연약한 사문의 옷자락에 매달려 려 한다.



◁보물 제245호인 오봉동석조여래좌상.

색깔이 없는 인생. 짜고 뺏은 맛도 없이 향기만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오감(五感)도 버리고, 핏줄도 끊은 이들의 눈에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수행자의 힘은 침묵에서 나온다. 마주서지 않는 무저항의 힘. 똑같이 주먹을 쥐지 않는 비폭력의 힘. 말없는 말의 힘. 수행자의 힘은 바람과 허기로 채운 공복(空腹)에서 나온다. 자벌레처럼 길 위에서 수없이 허리를 접었다 펴는 그 값진 수고에서 나온다. 기도 수행의 공간으로 대물려 살아온 집이 난데없는 굉음으로 기왓장이 흔들릴 때, 만장처럼 현수막이 나부끼고, 목탁소리, 염불소리들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굴착기의 전

진을 멈추지 못할 때, 출가사문은 이목구비 다 빗장을 지른 채 빈 가슴으로 역사의 광장에 주저앉아 염주알을 굴릴 뿐이다.

사패산, 천성산의 관통을 막기 위한 절집안의 싸움이 처절하다. 도룡뇽과 함께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 45일간 단식을 계속한 지울스님의 주위에 10만 명이 넘는 불자들이 서명으로 동참하였다. 40여개의 사찰이 훼손 위기에 처한 사패산 터널공사도 막바지 싸움에 접어든 느낌이다.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불화를 막기 위한 싸움

이기에 불자들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추풍령 아래 첫 고을. 금오산 서쪽 자락의 옛 가람 터인 갈항사지(項項寺址)도 알고 보면 또 다른 터널 공사로 몸살을 앓는 곳이다. 경부 고속철도가 발발을 관통하고, 대구~아포간 고속도로가 눈자위를 후벼 파고 지나가도 사지(寺址)에 세상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버려진 절터에 다시 버려지는 폐사지 갈항사지다. 갈항사지는 절 터 입구에 또한 거대한 골짜기 공장이 들어서 먼지로 가로막고 소음으로 접근을 통제한다.

소가 누워 있는 황국인 금오산 골짜기에 빈 걸질로 남아있는 갈항사지는 옛 절터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과수원, 담배밭, 고추밭으로 운치를 거둬하고 있다. 다만 한번 부처님과 맺은 인연은 영원한 것이어서 법등은 식어도 썩지 무른 과실들은 과즙이 넘치고 풀꽃들은 향기가 넘친다. 인연 따라 상(相)과 용(用)은 변해도 한번 향냄새 짙게 배인 그 체(體)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갈항사지는 행정구역상으로 김천시 남면 오봉리에 위치한다. 황악산에 직지가 있다던 금오산의



◁본래의 불두를 잃고 새로운 머리를 얹힌채 철책의 보호를 받고있는 비로자나불.

암봉 아래 마땅히 갈항사가 자리하여 소백산 줄기의 정기를 김천 땅에 모이고 상주-문경, 영동과 무주, 삼도시장의 장터를 열어 세간의 인심을 풍요케 했던 것이다. 갈항사지로 오르기 위해 지나치는 갈항마을은 돌담과 돌담사이의 나이 든 갈나무 울타리들이 숲경정 같은 곱질을 두르고 잊혀진 세월을 지키고 있다. 아귀가 뒤뜰된 돌담 아래 해바라기를 하다가 갈나무 가지처럼 뒤뜰된 손가락으로 절터

## 통일신라때 창건...寺勢 조선중기까지

### 창살 속 비로자나상 보기 안쓰러워 국보급 동서삼층석탑은 민속박물관에 전시 정비예산 책정불구 사적지 지정도 안돼

를 일러주는 병어리 노파의 손짓이 무표정하기만 하다.

<삼국유사>에는 효소왕 1년(692) 당나라에서 귀국한 화엄종의 고승 승전(勝詮)법사가 어느 해인가 금오산 자락에 절을 짓고 돌해골(石骨骸)을 정중으로 하여 화엄경을 강의했다고 전해진다. 돌해골은 석화된 해골로 이를 천도하기 위해 승전법사가 법회를 베풀었다는 추측과 함께 돌해골 80여개가 전해온다는 전설이 있으나, 그 전설조차 땅 속 깊이 어딘가에 묻혀 다시 드러줄 이들도 없다. <삼국유사>의 기록과 <신동국여지승람>에도 갈항사지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면 갈항사지는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되어 조선 중기까지 사세를 이룩해 온 것으로 추정되나 어느 때 무슨 이유로 역사 속에 사

라지게 되었는지 뚜렷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2001년 6월 경상북도는 가야문화권의 역사문화유적지 보존 정비 계획을 세워 갈항사지 발굴 정비로 73억 원을 책정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갈항사지는 발굴정비는 물론, 사적지 지정도 안 되고 있다.

갈항사지에는 현재 보물 245호인 오봉동석조여래좌상이 있고, 석조비로자나불 1기와 갈항사터 동서삼층석탑(국보 제99호)의 표지판만이 남아 있다.

절터 위쪽에 사세의 부흥을 꿈꾸며 새로운 갈항사가 들어섰으나 사찰의 복원은 막막해 보이기만 한다. 사지 한 편에 편액도 없는 전각 안에 모셔져 있는 석조여래좌상은 비록 고는 무너졌으나 아직도 눈매가 분명하게 살아있고, 목에 두른 삼도도 부드럽게 느껴진다. 불상 뒤의 구멍으로 보아 광배를 세웠던 흔적이 있으나 향마축 지인을 한 천년의 불상은 무연의 설법을 계속할 따름이다. 오늘의 처지가 안쓰러운 것은 전각 앞 발육 철책 안에 갇힌 비로자나좌상이 한층 더하다. 옛 추억은 기억하기조차 싫은지 본래의 머리를 잃고 이물스러운 새머리로 교체된 비로자나불상은 철책이 보호막이 아닌 철창처럼 느껴져 마주 하는 이의 마음을 아리게 한다. 차라리 시원한 무두불이 낫지 않았을까. 진열장의 마네킹처럼 무뎠던 저 새머리에는 무슨 상념들이 저장되고 있을까. 허전하기는 페비닐 조각이 나부끼는 고추밭에 나란히 서 있는 동서 삼층석탑의 표석도 마찬가지이다. 부재와 탑신이 빨벌이 흩어진 채 정자 사지에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표지판만이 쓰러질듯 서 있는 것이다. 경북국 민속박물관 입구에 무연히 서 있는 갈



◁페비닐이 나부끼는 고추밭에 나란히 서있는 동서탑 표석.



◁국립민속박물관앞에 놓여있는 갈항사지 동탑(왼쪽), 서탑(오른쪽).

항사터 동서삼층석탑은 국보급의 석조탑에 갈항사지의 존재를 세인에게 알려주는 신라의 대표적 삼층석탑이다. 1916년 2월12일 밤 도굴꾼들에 의해 탑내에 간직했던 유물을 잃고 무너진 두 개의 삼층석탑은 가까스로 경북공으로 옮겨진 가슴 아픈 수난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갈항사터 동서삼층석탑은 건립연대가 밝혀진 많지 않은 신라 석탑 가운데 하나이고, 신라석탑으로서의 유일하게 기단부에 금석문이 남아있는 전형적인 양식이라는 점에서 그 조형미의 우수성과 함께 이 분야 연구자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고위섭(高裕燮, 1906-1944) 선생은 이 두 탑을 가리켜 “단려하고도 아순(雅淳)한, 가장 문아(文雅)한 탑 중의 하나”라고 극찬하였다. 얼마 전까지 남면사무소 뜰에 장식물로 주저앉았던 팔부신중상(八部神衆像) 4기도 최근 직지사로 옮겨졌다는 소식이다. 한 때는 신라 왕실의 발걸음이 빈번했을 옛 가람 터에는 주인 배를 채우려고 날아드는 산쟁이 푸드득거릴 뿐 흰 구름조차도 금오산 능선에 머문 채 발 길을 끊고 있다.

<시인, 전각복각재단 사무처장> 사진=고영배 기자  
다음은 성주 법사사지편

### 갈항사지 가는길

갈항사지는 김천에서 4번 국도를 따라 김천교를 건너 구미로 가는 906번 도로로 접어들면 다음 오봉저수지를 지나 삼가마을 방향으로 1.7km 정도 가면 된다. 삼가마을에서 갈항마을로 가는 길은 골재채취공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공장을 지나쳐 신달 마을까지 올라가야 한다.

# 부처님 성지 녹야원에 첫 한국불상 봉안



‘한-인도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마하보디사르트센터는 스리랑카 근대 불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다르마팔라(Dharmapala : 1864-1933)가 조직한 대각회(Mahabodhi Society) 사르트트 지부가 있는 곳으로 이 안에는 무르간다쿠티비하라 사원이 있어 티베트, 스리랑카, 미얀마 등 동남아 불교국가들의 불상이 모셔져 있지만 유독 한국 불상만 없어 성지를 참배한 한국 불자들의 안타까움이 컸었습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성지 복원운동의 일환으로 불상을 점안하고 본격적인 인도불교와의 교류에 앞장서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특히 이번 점안법회에는 대각회 부회장 등 현지 불교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 한·인 수교 30년 기념 성도절(12월 30일)에 불불법회 불자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동참불자 명단 영구복장

올해는 불교의 발생 성지인 인도와 수교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한-인 수교 30주년’을 기 녘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후 최초로 설립하신 성지 녹야원에 한국전통 양식으로 조성된 불상을 모시는 불사를 독자 여러분을 비롯한 전국 사

부대중과 함께 추진합니다. 또한 인도 불교지도자와 한국 참가단이 동참한 가운데 기록한 성도절에 불상봉안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성지순례도 같습니다. 부처님 나라 인도와 수교 30주년을 기리는 이번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 부처님 성지 녹야원 한국부처님 봉안불사
  - 동참금 : 1구좌 1만원
  - 모든 동참자의 명단은 부처님 복장에 영구히 봉안됩니다.
  - 접 수 : 국민은행 006-01-0783-279 예금주/현대불교신문
- ▶ 봉안법회 참가 및 성지순례 행사 프로그램
  - 점안법회
    - 일 시 : 2003년 12월 30일(성도절)
    - 장소 : 마하보디사르트센터(Maha Boddhi Samath Center)
    - 범 주 : 혜총스님(감로사 주지)

- 인도·네팔 성지순례
  - 인솔법사 : 리선행법사(성지순례 전문가)
  - 일 정 : 2003년 12월 28일 ~ 1월 7일(10박11일)
  - 코스 : 인도(사르나트(녹야원), 보드가야, 쿠시나가르, 라즈기르, 스라바스티, 바라나시, 아그라, 뉴델리), 네팔(룸비니)
  - 동참금 : 199만원(비대금 포함)
  - 특 전 : 지역마다 최고급 호텔, 요리사 동행 식사제공, 서울·부산에서 동시 출발
- ▶ 동참문의 : (02) 737-8881
- ▶ 주최 : 현대불교신문
- ▶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총동문회